



발간년월 2018년 12월(제2호) 발행처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주 소 25798 강원도 동해시 공단1로 177 자유무역지역관리원 3층  
자료문의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물류연구기획팀 담 당 센터장 총 괄 이사장 Tel 033-522-6503 Fax 033-522-6505



## Contents

### ● 동해·묵호항 주요 이슈

- 동해항의 역사와 비상(飛上)
- 남북·북방경제를 만나다

### ● 항만·물류 통계동향

- 국내 항만별 선박 입출항 척수
- 동해·묵호항 국가별 수출입 화물처리실적

### ● 항만·물류 정책동향

- 제6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
-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

### ● 주변국 국제동향

- 러시아 동향
- 북한 동향

### ● 강원권 산업동향

- DBS크루즈훼리(주)

### ● 센터 및 항만·물류 관련 주요행사

### ● 동해러시아대게마을

## 동해항의 역사와 비상

### 동해항의 역사

동해항은 1973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중화학 중심의 공업화 정책에 따라 북평지역에 인공항만 건설이 발표되었다.

건설부에서는 「국가기간항만건설계획」에 의거 동해 북평항을 특수화물 및 컨테이너 전용시설을 갖춘 대형선박이 동시접안이 가능한 국가기간 종합항만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배후지역의 육상교통망과 연결하기로 하였다.

1974년 방파제 축조공사를 시작으로 「북평항(현재의 동해항)」건설을 시작하여 1979년 2월 국제무역항으로 개항이 되었다.



출처 :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http://www.reporterside.com>)

1965년 동해항 개발 전 북평해수욕장(현 동해항)

북평항은 개항 이후 1980년 4월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을 통합하여 동해시로 승격되었고, 1986년 「북평항」에서 「동해항」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2009년 12월 「동해항」과 「묵호항」을 통합하여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되면서 「동해·묵호항(동해지구는 동해항, 묵호지구는 묵호항)」으로 재탄생하였다.



출처 :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http://www.reporterside.com>)

1970년대 중반 동해항 개발 전 송정 모습



1979년 동해항 1단계 준공 송정 모습

## 동해항의 현재

동해항은 1979년 2월 개항 이후 1983년 12월 제1단계 항만공사가 준공되었고 1989년 해운항만청에서는 동해항을 태백권 거점항만과 러시아(당시 소련) 및 북한 교류에 대비한 북방교역 중심항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1994년 전국항만기본계획에서는 러시아와 북한과의 교역창구 운영계획, 2011년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서는 영동지역의 해상수송 거점지역 및 북방교역의 전진기지의 역할 수행, 2016년 수정계획에는 기타광석(석회석 등) 및 시멘트 연안 운송 거점항으로서 안정된 수급을 유지하며 북방교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항만으로써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해항 전경

1999년 2단계 확장공사가 끝난 이후 2016년에 체선율 해소를 위해 제3단계 항만공사가 계획되었고, 2017년 신항만건설계획으로 변경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3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10만 톤급 1선석을 비롯한 7개 선석을 확충하여 완공 시 총 23개 선석으로 확장되며 하역능력은 현재 2,700만 톤 (동해지구 2,170만 톤, 묵호지구 5,400만 톤)에서 4,600만 톤(동해지구 1,900만 톤 증가)으로 증가하게 된다.



동해항 3단계 조감도

## 비상(飛上)하는 동해항<sup>1)</sup>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북방경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북방경제권은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보면 인구는 약 5배, 경제규모는 2배에 달한다. 세계 10대 항만 모두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다. 이와 같이 북방경제권의 잠재시장은 크다.

북방경제권 국가 중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으로 극동러시아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으로 과거 정부 주도 정책과는 달리 안정적 투자를 위해 법과 제도로 외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극동지역의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攄 북한, 중국, 러시아 3개국 접경지역에 육로, 해로, 철로, 항공 노선의 입체적 공간을 연결하고자 한다.

일본은 광역경제권 및 미래개척 전략으로 서일본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며, 대지진 후 생산거점을 서일본 지역으로 이전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방경제는 한반도를 축으로 대륙과 해양, 모든 방면에서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 특사 파견, 북방경제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북방경제권 가운데 최단거리 교역로이고 동해권 최북단의 국가관리 국제무역항인 「동해·묵호항」이 자리잡고 있다. 「동해·묵호항」은 북극항로, TSR 3)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결되는 물류거점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위치하여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도권 및 중부권과 인구 1억 400만 명의 중국 동북 2성과 600만 명의 러시아 극동지역, 1억 2,700만 명의 일본과 만나는 환동해권 최적의 관문항으로써 육상 및 해상교역 등 북방경제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앞서 언급되었던 북방경제와 더불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 등과 같은 기회를 발판삼아 주변정세를 파악하고 대비한다면 동해·묵호항이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TSR-강원권 철도·해상 복합물류 수송루트(안)

- 1) 강원도(2013), 대륙횡단철도와 강원권 국가전략 철도연계 구축방안 보고서
- 2) 일대일로(一對一路)란 중국 주도의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말한다.
- 3) TSR이란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열차를 말한다.

# 남북·북방 경제를 만나다

## 2018 강원해양수산포럼

지난 2018년 12월 5일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와 (사)강원해양수산포럼이 공동주최하고, 강원도와 동해시, 강원도민일보의 후원으로 현진관광호텔 컨벤션홀에서 '2018 강원해양수산포럼'이 <동해·묵호항! 남북·북방경제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판문점 회담과 북미회담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분위기가 진전되는 가운데 강원도가 동해선 철도운송, 동해·묵호항의 남북교류협력과 북방교류협력이 증대될 수 있는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남북·북방 관련 전문가, 공무원, 산업체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2018 강원해양수산포럼은 러시아-북한 합작 회사인 라손콘트란스(RasonConTrans) 톤키흐 이반 미하일로비치(Ivan M. Tonkikh) 대표의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지자체 협력방안'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유라시아경제연구원의 조석홍 박사가 '신 북방경제협력 추진과 향후과제', 강릉원주대학교의 엄광열 교수가 '강원도 해운항로 활성화 무엇이 문제인가?', 마지막으로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정동훈 박사가 '남북교역의 전진기지 동해항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 강원도 구자열 정무특보,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윤순구 과장, 동해항만물류협회 탁복만 회장, 강원대학교 유원근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홍성규 교수, 삼척해운 김진수 대표 등 전문가들이 모여 동해·묵호항의 실상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토론에서는 동해·묵호항의 활성화, 남북경협에서의 동해시의 역할 확대 등을 위해 동해시와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2018 강원해양수산포럼

## 러-북 합작회사 라손콘트란스(RasonConTrans)

라손콘트란스는 러시아-북한의 합작회사로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의 일환인 나진-하산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북한과 관련한 유엔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업이다.

라손콘트란스는 2012년부터 나진항 3부두개발을 진행했으며, 현재 러시아 하산부터 북한의 나진항까지 약 54km의 선로를 수리하고 약 4.5km에 달하는 18개의 다리와 터널 등을 복원한 상태이다.

지난 '2018 강원해양수산포럼'에 참석한 라손콘트란스의 대표인 톤키흐 이반 미하일로비치(Ivan M. Tonkikh)는 기조연설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목표는 러시아, 북한, 대한민국 3자간 협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중점으로 하는 철도와 항만을 개발하여 유라시아전반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에는 23.9천만 루블의 영업이익과 28%의 영업이익율이 발생해 나진-하산프로젝트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입증되었으며, 2016년의 환적 물동량에 비해 35%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라손콘트란스와 나진-하산프로젝트는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잇는 다리로, 남한이 북한으로 향하는 첫 발걸음의 기회이자, 경제 협력을 통한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수단이며, 북한이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는 것을 강조했다.

톤키흐 이반 대표는 동해·묵호항은 과거 북한과 교역한 경험과 타 항만에 비해 지리적 유리한 위치에 있어 앞으로 있을 남북경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이를 위해 동해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라손콘트란스 대표 톤키흐 이반과 극동지사장 스테그니 다리야

## 국내 항만별 선박 입출항 척수

■ '18년 1~10월 국내 항만별 선박 입출항 실적은 약 30.5만 척이며, 이 중 부산항이 약 2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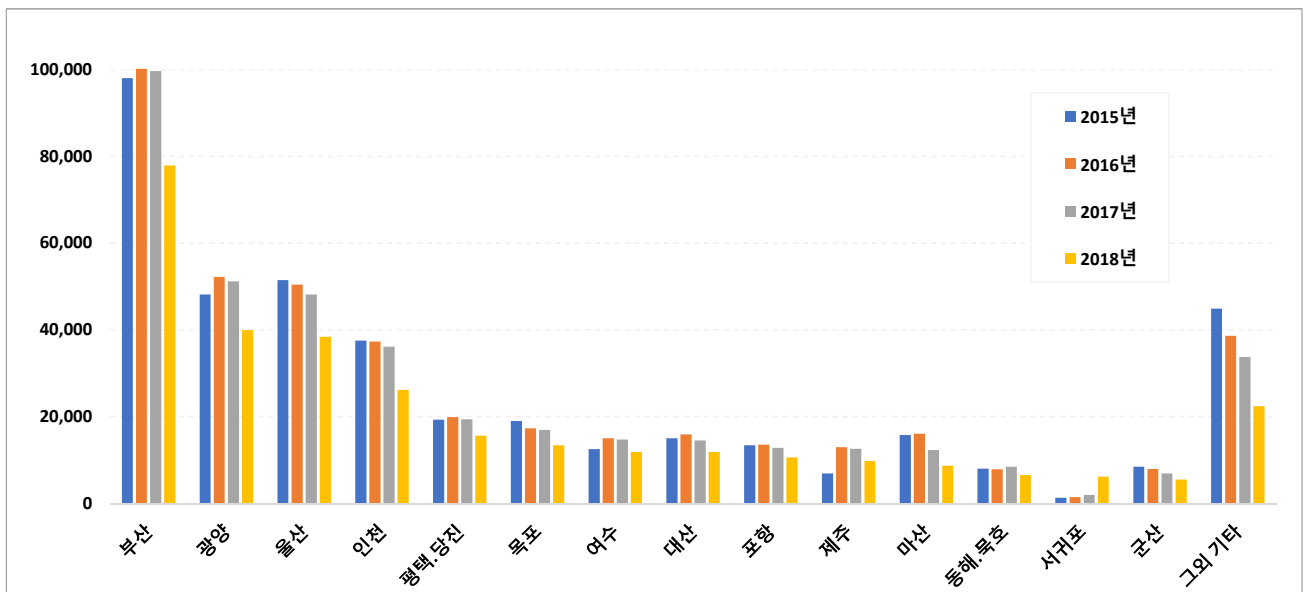
동해·묵호항은 전체 항만 중 12위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항만별 선박 입출항 실적 중 2.2%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5.9%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항만별 선박 입출항 척수(2015년~2018년 10월)

단위 : 척수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중
부산	98,087	100,197	99,687	77,921	25.5%
광양	48,229	52,263	51,269	40,049	13.1%
울산	51,525	50,495	48,182	38,448	12.6%
인천	37,560	37,407	36,215	26,207	8.6%
평택·당진	19,383	19,924	19,442	15,661	5.1%
목포	19,040	17,344	16,987	13,494	4.4%
여수	12,579	15,091	14,775	11,922	3.9%
대산	15,070	15,957	14,548	11,890	3.9%
포항	13,452	13,606	12,908	10,631	3.5%
제주	6,973	13,048	12,687	9,843	3.2%
마산	15,849	16,151	12,334	8,766	2.9%
동해·묵호	8,081	7,961	8,525	6,601	2.2%
서귀포	1,392	1,526	2,035	6,272	2.1%
군산	8,539	8,022	6,963	5,589	1.8%
그외 기타	44,987	38,663	33,804	22,439	7.3%
합계	400,746	407,655	390,361	305,733	100.0%

출처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



국내 항만별 선박 입출항 척수 그래프

## 동해·묵호항 국가별 수출입 화물처리실적

### '18년 1~10월 동해·묵호항 국가별 수출입 화물처리실적은 러시아연방, 인도네시아, 칠레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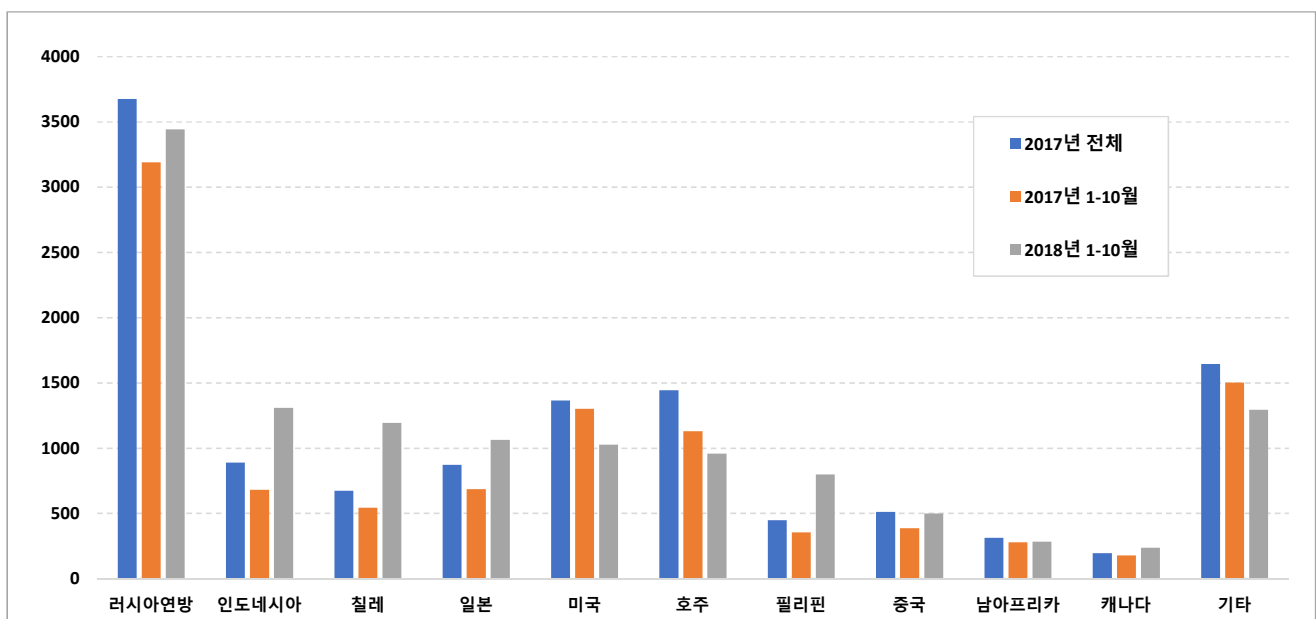
러시아연방 화물처리실적은 345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7.9% 증가하였고, 인도네시아는 131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91.8%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처리화물 중 시멘트와 유연탄 처리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는 120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19.7%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시멘트 처리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묵호항 국가별 수출입 화물처리실적(2015년~2018년 10월)

단위 : 천톤(R/T)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동기 대비(%)
			전체	1-10월	10월	1-10월	10월	
러시아연방	3,757	3,860	3,677	249	3,192	269	3,445	7.9%
인도네시아	678	791	890	15	683	120	1,311	91.8%
칠레	962	898	675	0	544	243	1,195	119.7%
일본	754	868	874	78	687	107	1,065	55.2%
미국	1,353	1,028	1,367	148	1,302	38	1,028	-21.0%
호주	1,248	1,339	1,446	131	1,132	216	960	-15.2%
필리핀	228	350	451	88	357	49	800	123.8%
중국	357	589	513	10	388	74	502	29.5%
남아프리카	343	232	314	42	281	36	285	1.5%
캐나다	65	26	198	0	180	0	238	32.1%
기타	3,970	3,121	1,646	142	1,503	195	1,296	-13.8%
합계	13,716	13,102	12,050	902	10,250	1,347	12,126	18.3%

출처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



동해·묵호항 국가별 주요 기간별 수출입 화물처리실적 그래프



## 제6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

### ■ 국내 유일의 항만 특화 컨퍼런스

2013년 부산항만공사(BPA)의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최초로 개최되었던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는 국내 유일의 항만 특화 컨퍼런스로, 그 동안 세계적인 항만물류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석학들을 초청하여 최신 이슈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다.

올해 '제6회 부산국제항만 컨퍼런스 (BIPC 2018)' 는 글로벌 항만 물류 시장의 선사 얼라이언스 재편, 4차 산업혁명의 도입 등의 화두를 중심으로 전환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전환 시대의 새로운 모색(New Exploration in the Transitional Era)'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계 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해운시장 전망과 항만업계의 미래, 항만의 친환경 성장전략, 동북아 물류협력(상생과 공동번영), 스마트 항만(해운·물류기술의 혁신), 항만·물류 인프라 개발협력 등 총 5개의 큰 주제로 진행되었다.

해운시장 전망과 항만업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미래의 공급망구축, 해운시장 전망과 항만산업의 미래, 해운 및 항만 디지털화의 영향, 한국 컨테이너 해운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2세션에서는 항만의 친환경 성장전략이라는 주제로 해운 대기오염 해결 방안과 항만의 역할, LA항의 선박배기가스 감축 노력과 중국의 녹색 항만 사례에 대해 발표되었으며, 3세션에서는 동북아 물류협력이라는 주제로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한 물류 수송 협력, 녹색 항만 성장과 해운 네트워크, GTI 인근 지역의 국경간 물류현황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4세션에서는 스마트 항만의 해운·물류 기술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트윈과 IoT를 통한 혁신, 블록체인을 통한 국제무역 디지털화, 향후 유력한 대체 에너지 LNG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제6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

#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

## ■ '함께하는 한-러, 함께여는 미래', 첫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작년과 올해 2차례에 걸친 한-러 정상회담에서 출범하기로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포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26개 지방정부가 모여 경제·통상, 문화·교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교류 확대와 경제단체들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지역 기업의 극동진출 방안 등을 모색했다.

포럼 첫날인 7일에는 '한-러 문화광장', '러시아홍보관', '한-러 음식교류전시관' 설치, 극동 9개주의 현황과 러시아 문화와 주요 관광지·음식 등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둘째 날에는 비즈니스세션, 전문가세션, 청년세션 등 분야별 포럼과 양국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지방정부 서미트, 러시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러시아 극동개발부 초청 국내기업 간담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다.

포럼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러시아 9개 주 대표단이 참석하여 포항지역 산업·문화 시찰과 환송오찬으로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마무리 되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의 지방정부들과 러시아 극동지역 지방정부들은 다양한 성과를 얻고 돌아갔다. 경상북도-연해주와 포항시-블라디보스토크는 양 지역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연해주와 충청북도는 항공노선 개발 및 농업, 관광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충청북도-연해주' 간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포항선언'이 채택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 외에 러시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는 10,173천불 상당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약 4,343천불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4,100천불의 MOU가 체결되었다.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지방정부 SUMMIT

## 러시아 동향

### 한·러 항로 수출물동량 주당 1,000TEU 증가<sup>4)</sup>

한·러 항로 수요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취항선사들에 따르면 9월 한·러 항로의 물동량은 약 1만7,600TEU로 전월 1만3,600TEU 대비 약 4,000TEU 이상 늘어났다. 2분기부터 상승흐름을 띠던 이 항로의 수출물동량은 7월에도 1만4,800TEU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보스토치니로 나가는 물동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노선의 9월 주당 평균 수출물동량은 680TEU로, 전월 평균 617TEU 대비 소폭 늘어났다.

### 푸틴의 승인으로 극동 연방 지구에 두 개의 지역 추가<sup>5)</sup>

푸틴 대통령은 '부라티야 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자바이칼주(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를 극동 연방 지구에 포함시키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으로 현재 극동 연방 지구는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유대인자치주, 사할린주, 캄차트카주, 추코트카주, 마가단주, 사하 공화국, 부라티야 공화국, 자바이칼주, 등 총 11개 지역이 되었다.

### 러시아 최대 해운사 페스코, 서울 밀레니엄힐튼에서 '화주초청 설명회' 개최<sup>6)</sup>

러시아 최대 해운사인 페스코(FESCO)가 지난달 24일 서울 밀레니엄힐튼에서 '화주초청 설명회'를 열었다.

페스코는 부산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보스토치니·사할린을 잇는 컨테이너선 서비스로 국내 화주의 유럽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페스코가 타 선사와 비교해 우위에 있는 물류 경쟁력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되는 철도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통하면 부산에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약 2주일만에 화물 운송이 가능하다. 페스코 알렉산드르 이수린 회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TSR을 통해 유럽으로 화물을 보낼 수 있는 페스코의 물류서비스가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남북 해빙무드에 힘입어 앞으로도 북방물류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철도물류망과 TSR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양국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열린 페스코의 '화주초청 설명회'

4) 코리아슈핑가제트, 10.26, [http://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19595](http://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19595)

5) 극동개발부 홈페이지, 11.04, <https://minvr.ru/press-center/news/19613/>

6) 코리아슈핑가제트, 11.01, [http://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19671](http://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19671)

## 북한 동향

### ■ 변화하는 북한의 열차 사정7)

코트라 도쿄 무역관이 최근 발표한 '변화하는 북한의 열차 사정'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국민 대부분은 자가용이 없어 택시 혹은 철도가 유일한 도시 간 교통수단이다. 특히, 철도는 평양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총 길이는 약 5,300km로, 전체 노선의 97%가 단선이다. 현재 북한의 철도 차량은 대부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고, 지하철은 1950~1960년대에 제조된 독일제, 노면 전차는 체코의 타트라 제품이 운용되고 있다.

문제는 낙후된 시설과 전력부족으로 인해 운행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은 세계 최대 규모의 댐과 석탄연료를 믿고 철도를 모두 전력화 했으나, 1990년대 이후 발전시설의 노후화 및 경제난으로 전력부족 상태에 빠졌다. 특히, 전력상황이 악화되는 겨울에는 하루면 가는 구간이 10일이 걸리기도 하는 등 실제 열차 운행은 열악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전력 및 시설 인프라 미비로 극적인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근 절전형 차량 도입 등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중장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철도 운영자가 민간 업체로 선로를 임대하여 특별 열차를 운행하는 북한과 같은 사례는 베트남, 스리랑카 등에서도 존재한다. 북한에서도 과거에 비슷한 열차가 운행된 적이 있지만, 사고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지속되지 않았다. 다만 "외국의 협력을 얻어 철도망을 정비하게 되면 열차의 운행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북한에서 개발된 신형 노면전차

### ■ 통일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협력 실무회의 개최 8)

최근 경제 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이 철도·도로에 이어 항로를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항공분야의 경우 철도나 도로연결과 달리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최소 인프라 구축으로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다.

북한은 앞서 우리나라 관할 공역을 거쳐 제3국을 오가는 국제항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항기구(ICAO)에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중단된 여러 국제노선 운항 재개를 비롯해 평양~인천 노선 등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노선 개설을 요구했다.

7) 코트라해외뉴스, 11.07,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10/globalBbsDataView.do?setIdx=247&dataIdx=170789>

8) 데일리안, 11.16, <http://www.dailian.co.kr/news/view/752132/?sc=naver>

## DBS 크루즈 웨리(주)

### ■ 소개

DBS크루즈웨리(주)는 2009년 6월 29일 동해항에서 첫 정기 출항을 시작한 선사로 환동해권 경제블록의 중심인 동해를 중심으로 최대 5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만 3천 톤급의 이스턴드림호가 블라디보스톡과 사카이미나토를 정기운항하고 있다.

- 2007. 12. DBS크루즈웨리(주) 법인 설립
- 2008. 02. 한-러-일 3국간 외항 정기 여객운송 사업 면허취득
- 2009. 06. 한-러-일 간 첫 정기 출항
- 2011. 05. 쓰루가항 항로연장을 위한 시범운송
- 2012. 06. 중국 동북3성-블라디보스톡-동해 간 육·해상 복합 시범운송
- 2015. 12. 동해-사카이미나토-마이즈루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시범운송
- 2018. 04. 자루비노항 항로연장을 위한 시범운송

### 연 혁

DBS크루즈웨리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신규항로 개설을 위한 시범운항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블라디보스톡-동해-사카이미나토 노선을 시범운송했으며, 2011년에는 동해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쓰루가항 항로연장을 위한 시범운송, 2012년 중국 동북3성에서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해 동해항으로 운송되는 육·해상 복합 시범운송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2015년 동해-사카이미나토-마이즈루항의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시범운송을 실시했으며, 최근 2018년 4월에는 자루비노항 항로를 연장하는 시범 운항을 실시했다.

DBS크루즈웨리는 자루비노 기항 후 동해항을 중심으로한 중앙아시아와 동유럽권에 아울러 중국 동북3성 물류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는 전문선사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DBS크루즈웨리 주요 항로

## 운항정보

이스턴드림호는 매주 일요일 14시에 동해항을 출발하여 다음날인 월요일 14시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에 도착한다. 동절기인 현재는 화요일 14시에 블라디보스톡을 떠나 수요일 14시 동해항에 도착한다. 최근 급부상한 여행지인 블라디보스톡은 올해 크루즈 관광객만 15만여명에 달하며, 블라디보스톡행 티켓은 매 항차가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 탑승을 원하는 승객들은 한달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동해항에 도착한 배는 일본행 승객들을 태우고 목요일 18시에 출발해, 금요일 아침 9시에 도착하여 승객들이 내린 후 4시간 뒤 마이즈루 항으로 떠난다.

최근 DBS크루즈웨리의 저렴한 운임료를 활용하여 유라시아 일주, 일본 일주를 하는 모터사이클 동호회, 자전거 동호인들이 늘고 있다. 간혹 블로그나 카페에서는 자신의 모터사이클, 스쿠터, 자동차, 자전거 등을 가지고 유라시아 일주, 일본 일주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 DBS크루즈웨리 운항 일정

구 분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블라디보스톡 (VLADIVOSTOK)		14:00	14:00	14:00			
동해 (DONG HAE)	09:30			14:00	11:00	18:00	
사카이미나토 (SAKAIMINATO)						09:00	13:00
마이즈루 (MAIZURU)						21:00	09:00

1) ● : 입항 / ● : 출항 2) — : 동절기(11월 2중순~2월 중순) 일시 변경 운항 3) 시차 : 블라디보스톡 : 1시간 / 사카이미나토 : 0시간

### 선박 제원

구 분	내 용
선 명	이스턴 드림호 (M.V. Eastern Dream)
국 적	파나마 (Panama)
선 종	국제 화객선 (Car-Ferry)
총 톤수	13,000 Tons
선 장	140.00M
선 폭	20.50M
속 력	22.15Knots
정 원	530명
화물 적재량	컨테이너 : 130TEU 자동차 : 65대 (Ro-Ro Type)

### 이스턴드림 호



## 센터 관련 행사

**제목 : 관광·경제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일시 : 2018년 11월 5일(월) 11:00**

**협약 기관 : 동해시, 한국관광협회의 중앙회, 강원도관광협회, 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

**주요 내용 : 동해시 관광 및 경제분야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으로 동해시 관광산업 홍보·마케팅 지원, 러시아수입대계 명소화 사업 홍보, 동해시 국내외 관광항로 이용 관광객 유치 지원, 동해·묵호항 물동량 창출 및 기업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 목 : 2018 강원해양수산포럼**

**일 시 : 2018년 12월 5일(수) 14:00**

**장 소 : 동해 현진관광호텔**

**내 용 : 한반도의 평화분위기 진전으로 동해선 철도 운송, 동해·묵호항의 남북 및 북방교류 협력이 증대되어 이를 기반으로한 발전 전략을 모색**

**주관·주최 :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사)강원해양수산포럼, 강원도**

**제 목 : 2018 동해포럼**

**일 시 : 2018년 12월 12일(수) 14:00**

**장 소 : 동해 현진관광호텔**

**내 용 : 남북 관계의 급진전됨에 따라 남북 교류의 새로운 환경과 강원도 동해안의 역할**

**주관·주최 :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강원도, 동해시**

## 항만·물류 관련 행사

**제 목 : 제2차 KIET 신남방포럼 국제세미나**

**일 시 : 2018년 12월 03일(월) 13:30**

**장 소 : Meliá Hanoi Hotel(하노이, 베트남)**

**내 용 : 신남방정책 구현과 한-베트남 관계의 중요성**

**주관·주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T), NCIF**

**제 목 : 2018 유라시아 도시포럼**

**일 시 : 2018년 12월 06일(목) 14:00**

**장 소 : 부산 웨스턴 조선 호텔 오키드룸**

**내 용 : 남북상생의 시대, 왜 유라시아인가?**

**주관·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발전연구원**

**제 목 : 제7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일 시 : 2018년 12월 13일(목)**

**장 소 : 부산 벅스코 컨벤션홀**

**내 용 : 북극항로 정기운송 가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발표와 토론**

**주관·주최 : 해양수산부, 영산대학교 북극물류연구소**

**제 목 : 미래물류기술포럼 2018년도 종합 세미나**

**일 시 : 2018년 12월 14(금) 13:10**

**장 소 :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내 용 : 인공지능과 스마트 물류**

**주관·주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 동해러시아대게마을의 의미와 역할

“동해시”하면 떠오르는 유명 음식이 무엇일까? 오징어, 문어, 양미리, 도루묵, 곰치국 등 바다를 자연환경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른 것이 있다면 러시아대게 수입의 관문인 동해항과 20년 이상 대게수입의 경험으로 지역의 노하우와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대게가 지역특화상품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동해시 자체의 소비층이 없기 때문이다. 즉 소비시장이 없었기에 지역내 대게시장 확장성이 없었고 지역특화상품 개발에 대한 전략이 없었다. 이러한 점을 염두해두고 동해시가 방문하게 만들어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것에 착안하여 “동해러시아대게마을”이 탄생하게 되었다.

동해러시아대게마을은 수입단가, 통관, 하역, 보관 등 제반비용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타지역보다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대게마을 운영과 동해항을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활성화 업무추진에 사용할 계획이다.

동해러시아대게마을은 대게를 활용한 신메뉴와 어린이를 위한 특별메뉴를 개발하여 2018년 11월 30일 재오픈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층 판매장은 전화 및 택배 주문이 가능하며 2층 식당에서는 1층에서 구매한 대게를 드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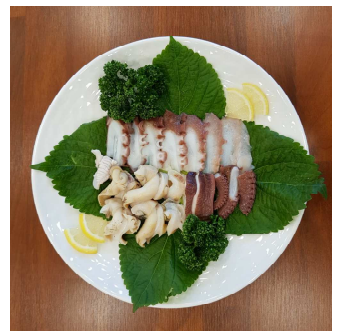
해물라면



어린이세트(4종)



게살볶음밥



문어&소라 숙회



### 매장 정보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추암길 198(추암동)
- 전 화 : 1층 대게판매점 033)522-4774  
2층 식당 033)521-4776
- 영업시간 : AM10:00~PM21:00(연중무휴)
- 이용방법 (\*상차림비 1인 4,000원 별도)
  - ①1층에서 러시아대게를 구입하시면
  - ②1층에서 대게를 찌서 2층으로 올려드리니
  - ③2층 식당에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 대게가격 : 수입가격에 따라 변동  
\*택배 가능합니다.